“위기를 넘어 축산업의 새시대를 열자”

이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도자료

축산관련단체협의회

제공일 : 2021. 6. 22
제공자 :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
쪽 수 : 1P
별첨자료 : 없음

담당 : 이정훈 축단협 대외협력팀장

전화	02)588-7055	팩스	02)584-5144
이메일	kdbfa@chol.com		

‘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’ 출범한다!

- 축단협, 2021년도 제2차 대표자회의 결과(6.22) -

❑ 축산관련단체협의회(회장 이승호)는 6월 22일(화)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, 축산업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축단협·축협조합장협의회·축산관련학회협의회가 공동 참여하는「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(이하 ‘축산업비대위’)」를 구성·운영키로 의결했다.

❑ 이날 회의에서 축산업비대위는 ①축산발전과제 대선공약 채택, ②대체단백질 관련 범축산업계 대응방안 강구, ③근본적인 축산업 환경규제 해결(탄소중립, 양분관리제 등)을 활동목표로, 대표자기구 및 실무자기구를 운영키로 하였다. 이와 관련, 7월 중 축산업비대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.

❑ 또한 이날 축단협 대표자들은 “2022년도 농식품부 예산안, 온라인마권발매법안, 축산발전기금 축소, 외국인 주거시설 강화,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등 굵직한 축산현안이 있음에도 농식품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”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, 농식품부가 축산농정을 올바르게 펼 수 있도록 축단협 차원에서 대정부·대국회 농정활동 강화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다.

❑ 한편,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“현재 축종을 불문하고 축산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”고 밝히며, “취임당시 약속한 바와 같이 축단협의 구심점 및 대외활동 강화를 통해 ‘강한 축단협’으로 거듭나 정부의 실정(失政)을 바로 잡겠다”며 재차 강조하였다. “끝”